

# 블루레이 호조에도 시장 “불투명”

## 다운로드·스트리밍 장악이 관건 ... 가정용 BD 플레이어 50% 소니

차세대 DVD 시장을 놓고 HD DVD와 경쟁하고 있는 BD(Blu-Ray Disc)가 2008년 미국에서 호조를 보이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시장 장악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이 불투명할 것으로 나타났다.

영국 더타임스 전문분석기관에 따르면, BD가 2008년 미국에서 2400만장을 판매를 기록해 2007년의 567만장에서 크게 늘었으나 “BD가 (시장) 과도기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판단했다.

또 “BD가 하이엔드 시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쪽은 향후 몇 년간 만만치 않을 것”이라며 “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서 발전이 없으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블루레이디스크협회의 앤디 파슨스 회장은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(CES)에서 “2008년 말 모두 1100종류 이상의 BD DVD가 출시됐음”을 강조하고 이 가운데 영화 흥행작 <다크나이트>의 BD가 처음으로 100만장 이상 판매됐다고 전했다.

2008년 말 미국 가정에는 총 1070만대 가량의 BD 플레이어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% 이상이 소니의 <플레이스테이션 3>인 것으로 밝혀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1/12>